

“운전면허증, 휴대전화에 담으세요”

과기정통부,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분실 방지 통해 범죄예방·부가 서비스 제공 확대 기대

내년부터 주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0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

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과 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하거나 차량에 보관 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



해 ‘지갑 없는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람’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약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록책으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모기향을 피워놓은 듯 우주에서 본 로켓 발사

NASA, 러시아 로켓 우주정거장에서 포착한 사진 공개

최근 소유스 MS-15 캡슐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러시아 로켓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포착한 이미지가 공개됐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사진에서 ‘소유스-FG’ 로켓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뒤 푸른 하늘을 지나 검은 우주로 날아오르며 모기향이 피어오르는 듯한 모양의 흰색 연기 꼬리를 달고 있다.

이 사진은 ISS 제60원정대 소속 미국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치가 촬영했다.

소유스 MS-15 캡슐은 3단 로켓에서 분리된 뒤 지구를 네 바퀴 돌아 발사 6시

간 만에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이 캡슐에는 아랍권 최초의 우주인인 아랍에미리트(UAE)의 하자 알만수리와 미국 우주인 제시카 메이어, 러시아 우주인 올렉 스크리포치카 등 3명이 탑승했다.

ISS에는 통상 3-6명의 우주인이 상주하지만 이들의 합류로 총 9명의 우주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대기간이 겹쳐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오는 3일 3명이 지구로 귀환하면 다시 6명 체제로 유지된다.

ISS에서는 지난 2009년에 13명의 우주인이 함께 지낸 바 있다.

/연합뉴스

올 추석 일본 휴대전화 로밍 지난해보다 45% 급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반발로 ‘일본안가요’ 운동이 확산하면서 올해 추석 일본 휴대전화 로밍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4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 6개월을 기념해 로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달 10-16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7일간 로밍 이용자수 2위에 머물렀던 중국은 올해 일본 불매 운동과 홍콩 시위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이용자 수가 17% 증가하며 1위에 올랐다.

반면 지난해 추석 로밍 이용자수 1위였던 일본은 작년 대비 45% 급락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5번째로 많은 여행객을 모았던 홍콩은 홍콩 시위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11위로 급락했다.

일본이나 홍콩 대신 동남아로 향하는 여행객의 증가도 도드라졌다.

베트남은 31% 급증하며 지난해보다 한계단 상승한 3위를 꿰찼다. 지난해 9위였던 필리핀은 50% 증가하며 올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7위였던 괌은 로밍 이용자수가 67% 급증해 8위로 올라섰다.

5G 데이터로 무제한 요금제인 ‘슈퍼플랜’ 이용 고객의 경우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 이용률이 90%에 달해 다른 요금제 이용 고객 30%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60+시니어 맞춤형 미디어교육 업무협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남희경)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와 최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60+시니어 맞춤형 미디어교육 및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열린 332명 경쟁

전남 최용모씨·우에다미카씨 대상 수상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이 주관하고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U+), 주요 포털(네이버, 카카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등이 후원하는 ‘2019 국민행복 IT 경진대회’가 지난 1일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7주년을 맞는 ‘국민행복 IT 경

진대회’는전국의장애인·고령층·장년층·결혼이민자 등이 정보통신기술 활용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의 장이다.

올해 행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을 배제와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로 ‘참여와 도전으로 만드는 디지털 세상,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예선대회에서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참가한 332명(장애인 124명, 고령층 112명, 장년층 56명, 결혼이민자 40명)과 가족 및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전남에서는 고령층 1부문(75세 이상)에 출전한 최용모씨와 결혼이민자 부문에 참가한 우에다미카씨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스마트폰 소비자 민원 비율 아이폰이 가장 높다

서비스센터 턱없이 부족 품질·AS 관련 불만 심각

아이폰이 국내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가운데 소비자 민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별 민원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집계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811건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민원 접수가 총 540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 431건(23.8%), LG전자 339건(18.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사별 점유율을 고려하면 애플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민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68% ▲LG전자 17% ▲애플 14% 순이다.

특히 애플 제품에 대한 품질·AS 관련 불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품질·AS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각각 446건, 311건 접수된 반면, 애플은 같은 기간 395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애플 서비스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소비자 민원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애플의 직영 서비스센터는 전국에 1곳(서울) 뿐이다. 외주업체 87곳에 서비스를 맡기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국 178곳, LG전자는 167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월)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오늘조회: 5	2주누적: 207	2주평균: 15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구분	임차권
토지면적	19835㎡ (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1차	2019-09-02
건물면적		보증금	(10%) 119,900,000원	2차	2019-10-14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최저매각가격	결과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유찰
사건명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매각토지 건물현황 (감정원 : 안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 2018.11.29)						
목록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감정가	비고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7376㎡ (2231.24평)	109,000원 (12,600원)	803,984,000원	·현황 '목전'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2189㎡ (662.173평)	68,000원 (10,700원)	148,852,000원	·현황 '목전'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임야 10270㎡ (3106.675평)	74,000원 (7,640원)	759,980,000원	·현황 '목전'
합계		면적소계 19835㎡ (6000.088평)		소계 1,712,816,000원		
감정가		토지:19835㎡ (6000.088평)		합계 1,712,816,000원		토지 매각

